

# 타갈로그어 어순의 유형론: 계량 유형론적 접근

송경안\* · 이은하\*\*

(전남대학교 · 조선대학교)

**Song, Kyung-An & Lee, Eun-Ha. (2023). A typological study on the Tagalog word order: A scalar approach.**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31(1), 1-2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plore the word order of Tagalog in a typological perspective. The basic word order of Tagalog has been a tropical issue in typological studies, because it is not easy to treat this topic in the traditional way of word order description. In this paper we would rather simply assume that it is a V-initial language. For our further discussion, we select 15 word order parameters, 4 for the order of NP, 9 for the order of VP and two further structural parameters, the adposition and the subordinator. For each parameter we investigate whether it shows the order of head-initial pattern or that of head-final pattern. In the scalar approach we assign the score [-1] to the parameter of head-initial pattern, the score [+1] to the parameter of head-final pattern, and [0] to the parameter which allows both patterns. Vietnamese, a typical head-initial language, shows the head-initial pattern for all the 15 parameters and obtains the score [-15] in this analysis, whereas Korean, a typical head-final language, shows the head-final pattern for all the 15 parameters and obtains the score [+15]. Tagalog, a typical V-initial language, is expected to have a strong tendency of head-initial pattern order. The results of our analysis support this presumption. In neutral order Tagalog shows the head-initial pattern for all the 15 parameters. One characteristic feature thereby is that this language allows alternative orderings between the noun and its modifiers.

**주제어(Key Words):** 타갈로그어(Tagalog), 어순(word order), 핵어 전치적 패턴(head-initial pattern), 핵어 후치적 패턴(head-final pattern), 계량적 유형론(scalar typology)

---

\* 제1저자

\*\* 교신저자

## 1. 서론

타갈로그어는 언어유형론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중요한 언어인데 국내적으로는 이에 대한 논의가 아직 미진한 상황이다. 국내의 연구로는 윤경원(2012)이 최초로 한국어와 타갈로그어의 기초적인 대조연구를 수행한 바 있으며 이후 송경안·이은하(2018)는 유형론적 관점에서 타갈로그어의 특징에 대해 논의하였다. 송경안(2020)은 타갈로그어의 명사구에서 수식어와 핵어 명사 사이의 가변적 어순이 일반적임을 관찰하고 이를 필리핀 타입 언어의 중요한 유형론적 특징으로 보았다. 이은하(2019)는 타갈로그어에 대한 학위논문이며 그 일부를 어순에 할애하였다. 어순은 유형론의 논의에서 중요하고 세밀한 관찰이 필요한 부분인데 그동안 송경안·이은하(2018), 이은하(2019)의 연구에 몇 가지 오류와 미진한 부분이 발견되었다.<sup>1)</sup> 필자들은 이 오류들은 바로 잡고 미진한 부분은 잘 보완하는 것이 향후 국내 타갈로그어 연구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는바 본 연구 수행의 일차적인 동기는 여기에 있다. 한편 송경안(2022)는 어순의 유형론적 분석을 위해 계량적 방식을 제안하였는바 본 연구는 송경안(2022)의 틀에서 타갈로그어의 어순을 분석하고 다른 언어와 비교하면서 타갈로그어 어순의 전체적인 경향성에 대해 논구하고자 한다.

어순 유형론의 일반적인 분석 방법에 따라 본 연구는 기본어순, 명사구 어순, 동사구 어순으로 나누어 타갈로그어의 어순에 대해 논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먼저 우리는 제2장에서 어순 유형론의 보편성과 송경안(2022)의 분석 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우리는 국내의 타갈로그어 연구 및 언어유형론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언어는 해당 종족의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는바 타갈로그어에 대한 본 연구는 국내에 이주해 있는 필리핀인들을 이해하고 이를 통한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데에도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또 향후 필리핀인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2. 어순 유형론의 보편성 논의와 계량적 유형론

Greenberg(1966) 이래로 어순은 언어유형론에서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다 (Lehmann (Ed.), 1978; Comrie, 1981, 제4장; Hawkins, 1983; Dryer, 1995; Song, 2001, 제2장; Haspelmath, et al. (Eds.), 2005, 제81-97장; Dryer, 2007; Song, 2011, 제13장; Song, 2012 참조).<sup>2)</sup> Greenberg(1966)은 30개의 언어를 표본으로 조사하여 어순의 유형과 관련하여 45가지

1) 가장 중요한 점은 기본어순에 관한 부분이며(3.1. 참조), 이밖에 동사구 어순 기술에서 이은하(2019)의 논의가 불분명한 곳들이 있었다.

2) 유형론의 역사에 대해서는 Haspelmath et al.(Eds.)(2001) 제4장 참조.

의 함의적 보편성(implicational universals)을 제시하였다. 이후 Hawkins(1983)은 Greenberg (1966)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350개 언어를 조사하여 어순에 관한 함의적 보편성을 세분화하였다.

Greenberg의 어순의 유형론적 보편성은 Lehmann (1973; 1978a,b), Vennemann (1973; 1974) 등에 의해 다듬어지고 정교화 되었다. Lehmann은 Greenberg의 VSO, SVO, SOV의 3가지 주요 기본어순을 VO 언어와 OV 언어로 구분하였고 ‘어순의 근간원리(fundamental principle of placement)’로 보편성에 접근하고자 하였다. Vennemann은 운용소(operator) 및 피운용소(operand)의 개념을 도입했는데 이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OV 언어와 VO 언어에서 일관성 있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 이러한 경향을 그는 ‘자연스러운 배열의 원리(principle of natural serialization)’라고 불렀다. 그러나 실제 언어현상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어순의 보편성 원리는 지나치게 이상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Hawkins, 1983, p. 63; 이기갑, 2008, p. 303 참조).

Dryer (1992)는 세계 6개 대륙에 걸쳐 625개의 언어를 대상으로 어순들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 역시 V/O의 위치에서 출발해서 다른 어순들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하였는데 V/O의 위치와 상관관계에 있는 어순으로 부치사, 관계절 그리고 소유격의 위치를 들었다. 이후 WALS에서는<sup>3)</sup> V/O의 위치와 상관관계에 있는 어순으로 부치사와 관계절의 위치만을 들고 있다(Dryer, 2013a,b,c 참조). Greenberg (1966)이나 Hawkins (1983), Lehmann (1973; 1978a,b), Vennemann (1973; 1974) 등의 일반화에서 대폭 후퇴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어순의 보편성 논의는 동사(V)와 목적어(O)의 위치를 중심으로 다른 어순과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것인데 송재정 교수는 이를 ‘VO/OV-유형론’이라고 불렀다(Song, 2012, p. 29).

이처럼 ‘VO/OV-유형론’이 거의 의미가 없어져 보인 듯한 상황에서 어순의 보편성 논의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것일까? 송경안(2022)는 이에 대해 ‘핵어 전치적/후치적 패턴’이라는 개념과 및 계량적 방식을 제안한 바 있다. ‘핵어 전치적/후치적 패턴’은 Vennemann (1974)의 운용소/피운용소와 비슷한 개념이다. 예를 들면 직접목적어(DO)와 간접목적어(IO)가 있을 때 Vennemann은 후자(IO)가 운용소이고 전자(DO)가 피운용소라고 하였다 (ibid., p. 9). 이에 따르면 OV 언어에서는 [IO+DO]의 어순이 자연스럽고 VO 언어에서는 [DO+IO] 어순이 자연스럽다.<sup>4)</sup> 또 시간부사(TAd)와 방향부사(DAd)가 있을 때 전자가 운용소이고 후자가 피운용소라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OV 언어에서는 [TAd+DAd]의 어순이 자연스럽고 VO 언어에서는 [DAd+TAd] 어순이 자연스럽다. Vennemann의 이러한 개념은 OV 언어인 한국어와 VO 언어인 프랑스어의 관련 어순을 잘 설명해 준다((1) 참조).

3) WALS = <https://wals.info/>

4) 여기서 ‘자연스럽다’는 말은 어순의 경향성을 의미한다. OV 언어에서는 [IO+DO] 어순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VO 언어에서는 [DO+ IO] 어순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뜻이다.

- (1) a. 영화는 철수에게 시계를 주었다. (IO + DO)  
 b. Je donne un livre à Marie. (DO + IO)  
 I give a book to Mary  
 'I give Mary a book.'  
 c. 나는 오늘 서울에 간다. (TAd + DAd)  
 d. Je vais à Séoul aujourd'hui. (DAd + TAd)  
 I go to Seoul today  
 'I go to Seoul today.'

Vennemann의 운용소/피운용소 개념은 핵어(head)가 있는 구조에서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1)과 같은 구조에서는 다소 억지스러운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송경안(2022)는 '핵어 전치적/후치적 패턴(어순)'이라는 용어를 제안한 바 있다. (1)에서 한국어의 관련 어순은 핵어 후치적 패턴이고 프랑스어의 관련 어순은 핵어 전치적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개별언어는 이 2가지 패턴 가운데 일관되게 한 가지 패턴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2가지 패턴을 혼합해서 사용하고 있다. 이때 매개변수(parameter) 별로 어순의 패턴을 정리하여 계량화하면 해당 언어의 경향성을 알 수 있는데 송경안(2022)는 이러한 분석 방식을 계량적 유형론(scalar typology)이라고 하였다. 이 분석 틀에서는 15개의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각 매개변수 별로 핵어 전치적 패턴은 [-1]점, 핵어 후치적 패턴은 [+1]점, 둘 다 있는 경우는 [0]점을 부여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어는 15개 매개변수에서 모두 핵어 전치적 패턴을 보여 [-15]점이 되었으며, 반대로 한국어는 모두 핵어 후치적 패턴을 보여 [+15]점이 되었다. 흔히 (S)VO 언어라고 알려져 있는 독일어와 중국어가 핵어 후치적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송경안, 2022, p. 13).

### 3. 타갈로그어 어순 분석

어순의 유형에 대한 논의는 명사구와 동사구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으며 이밖에 기본 어순, 자유어순/고정어순 그리고 핵어전치형/핵어후치형 어순 등 일반사항에 대해 논의할 수도 있다. 타갈로그어는 동사 전치(V-initial) 언어로써 핵어 전치형 언어이며 명사의 기능이 모두 전치사로 표현되기 때문에 명사구의 위치가 아주 자유로운 언어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은하(2019)에서 자세히 논의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생략하기로 한다. 본 장에서는 먼저 3.1.절에서 기초적 논의로써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에 대해 논의하고 이어 3.2.절에서는 전통적인 어순의 유형론 및 송경안(2022)에서 설정한 15가지의 매개변수

를 중심으로 계량적 유형론의 관점에서 타갈로그어의 어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1. 기본어순<sup>5)</sup>

기본어순이란 타동사 구문을 중심으로 볼 때 문장의 핵심 성분인 주어(S), 동사(V), 목적어(O)의 위치를 말하는데 SVO, SOV, VSO의 3가지 어순이 주로 나타나고 드물게 VOS, OSV, OVS 어순도 관찰된다(Hawkins, 1983; 이은하, 2019).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는 유형론적 문제이다. 기본어순은 주어가 무엇이나 하는 문제와 얽혀 있는데 타갈로그어는 주어를 확정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먼저 (2)의 간단한 예문을 보면 이 언어가 동사(술어) 선행(verb initial) 언어라는 것을 알 수 있고<sup>6)</sup> 학자들 사이에 이 점에서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 (2) 타갈로그어 술어 선행 어순

a. Si Ginoong Santos ako.  
CASE Mr. Santos I  
'I am Mr. Santos.'

b. Bill Cook ang pangalan ko.  
Bill Cook CASE name my  
'My name is Bill Cook.'

(Castle & McGonnell, 2003, p. 5)

그러나 타갈로그어 타동사 구문에서 2개의 명사 가운데 어느 것이 주어인가 하는 문제는 간단하지가 않으며 이에 대해서는 (3)과 같이 3가지 입장이 있다(송경안·이은하, 2018, p. 189). (8a)는 타갈로그어를 주제중심(topic-prominent) 언어로<sup>7)</sup> 보고 이 언어에는 주어가 없다는 입장이다. Schachter (1976; 1977; 1996)가 이 입장을 견지하는 대표적인 학자이며 De Vos (2011)도 타갈로그어의 기본구조를 [동사 > NEWS > POD]로<sup>8)</sup> 보았다. 이러한 틀에서는 S, O, V의 순서, 즉 언어유형론에서 말하는 기본어순에 대해 논하기 어렵다.

5) 송경안·이은하(2018), 이은하(2019)에서 필자들은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을 VSO로 보았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입장을 수정한다.

6) (2)의 예문은 술어가 명사인 경우이고 동사 술어의 예문은 (4)-(7)에서 볼 수 있다.

7) 주제중심 언어에 대한 자세한 것은 Li & Thompson (1976) 참조.

8) POD = point of departure. Schachter (1976)의 주제(topic)에 해당한다. 전통적으로 언어학에서는 주제(topic)가 먼저 오고 평언(comment)이 나중에 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Danes (Ed.), 1974/2015 참조) 타갈로그어는 이와 반대이다.

- (3) 타동사 구문 주어에 대한 3가지 입장
- a. 주제/평언 구조로 보는 입장
  - b. 능격구조로 보는 입장
  - c. 대격구조로 보는 입장

(3b)는 타갈로그어를 능격언어로 보고 기본어순을 VSO로 보는 입장이다(Payne, 1982; Gerdts, 1988; Blake, 1994, p. 89; Dryer, 2005; 진남택·손재현 역, 2013, p. 225, 윤경원, 2012, p. 316 참조). (4a)는 이 언어의 자동사 구문이고 (4b)는 타동사 구문인데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목적어(피동주, patient)가 동일한 기능표지 *ang*을 취하고 있다.<sup>9)</sup> 이 데이터를 보면 타갈로그어는 능격언어처럼 보이고 기본어순을 VSO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 (4) a. Na-hulog                      ang              lalaki.  
 AF=fall\_down.PERF    CASE\_1    boy  
 ‘The boy fell down.’
- b. B=in=a-basa<sup>10)</sup>                      ng              guro              ang              diyaryo.  
 IMPF=PF=read              CASE\_2    teacher    CASE\_1    newspaper  
 ‘The teacher is reading the newspaper.’

그러나 예문 (5)는 이 언어가 능격언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4b)와는 달리 (5)에서는 명사 기능표지 *ang*이 피동주가 아니라 행동주(agent)에 붙어 있는 것이다. 능격언어에서는 이러한 격표지의 교체가 불가능하다. (4a)와 (5a)를 비교하면 대격언어의 구조와 같다. 즉 자동사의 주어와 타동사의 행동주에 동일한 격표지가 사용된 것이다. (5b)는 (5a)의 명사들의 순서를 바꾸어 놓은 것인데 (5b)가 더 중립적인 어순이다. 즉 *ang* 표지가 붙은 명사가 뒤에 오는 것이 보통이며 이는 위에서 언급한 De Vos (2011)가 타갈로그어 기본구조라고 한 [동사 > NEWS > POD]와 일치한다.

9) 이 글에서 사용하는 주요 약어는 다음과 같다. ACT: actor, AF = actor focus, PAT = patient, PF = patient focus, BEN: benefactive, BF: benefactive focus, DIR: directional, DF: directional focus, IF = instrumental focus PERF = perfective, IMPF = imperfective, CTPL = contemplated(미도래상).

10) ‘=’는 접요사(infix)를 나타낸다. 이 동사의 어근은 *basa*이고 처음절 *ba*를 반복한 *babasa*는 미완결상(imperfective)을 나타낸다. 이 *babasa*에 접요사 *in*이 붙으면 *binabasa*가 된다. 본 논문의 타갈로그어 동사구조 분석은 <https://www.tagalog.com>을 참고한 것이다. 본 연구는 어순에 대한 것이므로 동사구조의 분석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 이하 예문에서는 편의상 이를 간단히 표시하겠다.

- (5) a. B=um=a-basa      ang      guro      ng      dyaryo.  
 AF.read.IMPF      CASE\_1    teacher    CASE\_2    newspaper  
 ‘The teacher is reading a newspaper.’
- b. B=um=a-basa      ng      dyaryo      ang      guro.  
 AF.read.IMPF      CASE\_2    newspaper    CASE\_1    teacher  
 ‘The teacher is reading a newspaper.’

(4)-(5)에서 동사 *binabasa*, *bumabasa*는 *basa*를 어근으로 하며 접요사 *-in/-um-*이 *ang* 표지의 위치를 결정한다. 접요사를 빼면 *babasa*가 남게 되는데 어근의 첫음절 *ba-*를 반복하면 미완결상(imperfective)이 된다. (4a)의 *nahulog*은 *hulog*이 어간이며 첫음절 *hu-*를 반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완결상(perfective)이 된다. 이러한 자동사의 경우 행동주에 *ang* 표지가 붙기 때문에 (5)의 예문과 같은 계열의 구조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들은 행동주에 *ang* 표지가 붙는 구조이며 이를 흔히 행동주 초점(actor-focus) 구조라고 부른다. *Ang*이 초점 표지라는 뜻이다.<sup>11)</sup> 이에 반대로 피동주에 *ang* 표지가 붙은 (4b)는 피동주 초점(patient-focus) 구조라고 부른다.

이처럼 타갈로그어에서 자동사의 주어에 붙는 *ang*이 타동사 구문에서는 행동주나 피동주 어디에나 붙을 수 있기 때문에 (4)의 자료만 가지고 이 언어를 능격언어라고 판단하는 것은 성급한 것이라고 하겠다.<sup>12)</sup> 타갈로그어의 능격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ang*의 위치가 같은 계열의 자동사와 타동사 구문, 즉 행동주 초점 구문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4a)와 (5)의 구조를 가지고 이 언어의 능격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며 이에 따르면 타갈로그어는 대격언어에 가깝다. (3c)가 바로 이러한 입장일 것이며 이 경우 타갈로그어 기본어순을 VOS볼 수 있을 것이다(5b 참조). 타갈로그어 학교문법에서는 *ang* 표지 명사를 주어로 보고 있다(J. Visaya p.c.). 그러나 타갈로그어를 단순한 대격언어로 보기도 쉽지 않다. 대격언어란 주격-대격의 대립이 있는 언어를 말하는데, 예문 (5)에서는 이러한 구분이 문제되지 않았지만, 예문 (4b)에서 *dyaryo*가 주격이고 *guro*가 대격이라고 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명사 기능표지 *ang*의 분포를 조금 더 관찰해 보면 타갈로그어를 대격언어로 분류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더 분명해진다. 즉 이 표지는 행동주와 피동주 뿐만 아니라 여격, 수혜격, 처소격, 방향격, 도구격 등 다양한 명사에 붙을 수 있다(Ramos, 1971, p. 21, pp. 56-69; Shibatani, 2004, p. 1153).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보면 (6)과 같다. (6)의 예문에는 4가지 기능의 명사가 나타나는데 이들이 모두 *ang* 표지를 취하고 있다. 타갈로그어를 대격언어로 볼 경우 이 4가지 명사가 모두 주격이 될 수 있다는 뜻이 되는데 이러한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한편 (4)-(5)를 보면 *ang/ng* 표지가 대립하고 있는데<sup>13)</sup> (6)을 보면 *ng* 표지 역시 문맥

11) *Ang*의 기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송경안·이은하(2018) 참조.

12) Aldridge (2007)도 (4)와 같은 구문들을 근거로 타갈로그어를 능격언어로 보았다.

에 따라 행동주, 피동주, 수혜자(recipient) 등에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대격 표지라고 보기도 어렵다. 타갈로그어를 대격언어로 보기 어렵다는 것은 이 언어의 기본어순을 VOS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 될 것이다.

(6) 타갈로그어 *ang*의 다양한 분포(Andrew, 2007, p. 203)<sup>14)</sup>

- a. mag-a-alis            ang    babae    ng    bigas    sa    sako    para sa    bata.  
 AF.take\_out.CTPL    FOC    woman    PAT    rice    DIR    sack    BEN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 b. a-alis-in            ng    babae    ang    bigas    sa    sako    para sa    bata.  
 PF-take\_out.CTPL    ACT    woman    FOC    rice    DIR    sack    BEN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 c. a-alis-an            ng    babae    ng    bigas    ang    sako    para sa    bata.  
 DF.take\_out.CTPL    ACT    woman    PAT    rice    FOC    sack    BEN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 d. ipag-a-alis            ng    babae    ng    bigas    sa    sako    ang    bata.  
 BF-take\_out.CTPL    ACT    woman    PAT    rice    DIR    sack    FOC    child  
 ‘The woman will take some rice out of the sack for the child.’

타갈로그어가 대격언어도 능격언어도 아니고, 또 그 기본어순이 VSO도 VOS도 아니라면 유형론적으로 이 언어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문제는 이 언어의 주어성(subjecthood)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Schachter (1976; 1977; 1996) 등은 이 언어에 주제(topic)만 있을 뿐 주어는 없다는 입장이고 Kroeger (1993)은 상승규칙이나 채귀화 등의 통사적 실험을 바탕으로 *ang*이 주어표지라는 입장이다.<sup>15)</sup>

이와 관련하여 Shibatani (2004)는 제3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타갈로그어에서 행동주(agent) 이외의 명사에 *ang* 표지가 붙을 경우 이 명사가 부분적으로 주어의 특징을 갖기는 하지만, 이 경우에도 여전히 행동주가 주어성을 강하게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13) 고유명사일 경우 기능표지가 *si/ni*로 바뀐다.

14) Andrew (2007)는 ‘focus’를 ‘pivot’라고 불렀고, 타갈로그어는 시제언어가 아닌데 ‘미래’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15)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이에 대한 다른 자료로 Norvin Richards, Joey Sabbagh의 연구를 추천하셨다. Sabbagh (2016)은 목적어와 명사의 의미적 기능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 연구는 타갈로그어의 actor-subject, theme-subject를 구분함으로써 이 언어의 능격성/대격성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ang*을 주어 표지로 보고 있는데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는 설득력이 떨어진다. Richards (1996, 2000)은 타갈로그어의 주어를 생성이론의 틀에서 논의한 연구인데 이는 필자의 능력을 벗어난 내용으로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 놓는다.

다(Shibatani, 2004, p. 1154). 주어성이 두 가지 명사구에 나누어지는 경우로써 어느 것이 확실하게 주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Kibrik (1997)은 타갈로그어 이외에도 이러한 언어가 많이 관찰된다고 보고하고 있고 Kazenin (2001, p. 912)은 능력언어에서 흔히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았다.

Shibatani (2004)는 이에 따라 타갈로그어에서 주어라는 개념을 포기하고 대신 주논항(primary term)이라는 개념을 제안한다. 그는 이 개념을 능력언어에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타갈로그어에서는 ang 표지 명사가 주논항이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Shibatani (2004)의 제안이 설득력 있다고 본다. 이는 타갈로그어를 주격-대격 대립의 틀에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이며 S, V, O를 바탕으로 논의해 온 기본어순도 이 언어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뜻이 된다.<sup>16)</sup> 타갈로그어를 대격언어로 보는 Kroeger (1993)도 기본어순에 대해서는 유보적이다. Dryer (2005)는 타갈로그어를 VSO 언어로 분류하고 있는데 Dryer (2007)에서는 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면서 동사 전치 언어인 것은 분명하다고 보았다. Hawkins (1983, p. 283, 339 참조)도 기본어순의 유형을 SVO, SOV, VSO, VOS 등 다양하게 분류하면서도 타갈로그어 등 일부 언어에 대해서는 동사 전치형(V-initial) 언어라고만 분류하였다.

기본어순과 관련하여 타갈로그어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도치소(inversion marker)이다. 즉 이 언어는 기본적으로 동사 전치의 어순을 취하지만 도치소 *ay*를 사용해서 흔히 동사를 문장의 두 번째 자리로 보내기도 한다(Schachter & Otones, 1972, p. 485; De Vos, 2011, p. 381). 이는 중립적인 어순이 아니고 강조된 어순이다(Greenberg, 1978). Greenberg (1966, p. 79)는 VSO 언어에서 흔히 SVO 어순이 나타난다고 보고하고 있다. 타갈로그어 도치구조에서 문두에 올 수 있는 요소는 다양하며 몇 가지 예를 보면 (7)과 같다(Schachter & Otones, 1972, p. 485; 송경안, 2020, p. 70 참조). (7a)는 동사선행 구조이고 (7b-d)는 도치구문인데 행동주, 피동주, 부사가 각각 문두에 나와 있다.

- (7) a. B=in=ili            ko itong damit kahapon.  
 PF.buy.PERF    I    this    dress    yesterday  
 'I bought this dress yesterday.'
- b. Ako ay b=um=ili        nitong damit kahapon.  
 I    INV AF.buy.PERF    this    dress    yesterday  
 'I bought this dress yesterday.'
- c. Itong damit ay        b=in=ili        ko kahapon.  
 this    dress    INV    PF.buy.PERF    I    yesterday  
 'This dress I bought yesterday.'

16) 본 연구자들은 송경안·이은하(2018), 이은하(2019)에서 타갈로그어의 기본어순을 VSO로 본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입장을 수정한다.

d. Kahapon ay b=um=ili ako nitong damit.  
 yesterday INV AF.buy.PERF I this dress  
 ‘Yesterday I bought this dress.’

도치구조는 주로 문어나 공식적인 구어에서 사용된다(De Vos, 2011, p. 381). Fox (1985)는 이 도치구조가 담화 연속성(discourse continuity)과 관계가 있다고 보았다. 이 연구는 Bloomfield 타갈로그 텍스트를<sup>17)</sup> 분석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Bloomfield 텍스트에는 모두 614개의 문장이 나타난다. 이 가운데 동사선행 구조가 388회로 63.2%를 차지하고 도치구조는 266회로 36.8%로 나타났는데, 문단이나 문장이 새로 시작할 때 도치구조가 많이 쓰이고 있었다(송경안, 2020, p. 69).

### 3.2. 매개변수별 분석

송경안(2022)은 15가지의 매개변수를 설정하고 개별언어 어순의 핵어전치성과 핵어후치성을 계량화한 바 있다. 이 매개변수들은 크게 명사구와 동사구 어순 관련 변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타갈로그어의 명사구 어순에 대해서는 송경안(2020)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기 때문에 본 연구는 이에 대해 논지 전개에 필요한 부분만 간단히 요약하기로 한다.

송경안(2022)의 15가지 매개변수 가운데 명사구와 관련된 것은 한정사, 형용사, 소유격, 관계절 등 4개인데 동사 전치(V-initial) 언어인 타갈로그어에서 이들 수식어들이 핵어 명사 뒤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실제로 우리의 이러한 예상은 맞아 들어간다(이은하, 2019 참조). 한편 송경안(2020)은 이들 명사 수식어들의 위치가 핵어 명사 앞에도 놓일 수 있는 가변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이점은 타갈로그어 및 오스트로네시아 계통 언어들의 중요한 유형론적 특징이라고 논구한 바 있다. 이 4가지 매개변수와 가변적 어순을 보면 (8)과 같다(송경안, 2020 참조). 타갈로그어 관련 문헌에 따르면 이 가변적 어순들 가운데 핵어 명사가 수식어 앞에 오는 구조, 즉 핵어전치 구조가 기본구조이다(Aspillera & Hernandez, 2014; Scontras & Nicolae, 2014, p. 21; Schachter & Otones, 1972, p. 121, 122, 132).<sup>18)</sup>

#### (8) 타갈로그어 한정사/명사의 가변적 어순

a. mesa-ng<sup>19)</sup> ito

17) Bloomfield's Tagalog Text(1917).

18) 유표적 어순의 사용은 정보구조와 관련이 있다. 예를 들면 [형용사/명사] 구문에서 형용사의 정보가 새로운 정보일 경우 [A+N]의 어순을 선호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것은 송경안(2020) 참조.

19) LNK = linker. 타갈로그어 및 오스트로네시아(Austronesian) 언어에서 흔히 나타나는 연결소이다. (10b)의 *na*가 기본형태이고 음운환경에 따라 의존형태소 *ng*, *-g*로 실현되기도 한다(Schachter & Otones, 1972).

table-LNK this  
 'this table'

b. ito-ng mesa  
 this-LNK table  
 'this table'

(9) 타갈로그어 형용사/명사의 가변적 어순

a. bahay na maganda  
 house LNK beautiful  
 'beautiful house'

b. maganda-ng bahay  
 beautiful-LNK house  
 'beautiful house'

(10) 타갈로그어 소유격/명사의 가변적 어순

a. pangalan ng kumpanya  
 name CASE company  
 'the name of the company'

b. kumpanya na pangalan  
 company LNK name  
 'the name of the company'

(11) 타갈로그어 관계절/명사의 가변적 어순

a. ang bahay na kanyang g=in=awa  
 CASE house LNK he PF.make.PERF  
 'the house that he made'

b. ang kanyang g=in=awa na bahay  
 CASE he PF.make.PERF LNK house  
 'the house that he made'

이상과 같은 타갈로그어 명사구 어순을 전형적인 핵어 전치 어순을 보이는 베트남어와 전형적인 핵어 후치 어순을 보이는 한국어, 그리고 2가지가 혼합적으로 나타나는 영어와 비교하여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송경안, 2022 참조). 이 표에서 'both'는 2가지 어순이 공존하는 것을 가리킨다. 타갈로그어의 경우 유형론적으로 가변적 어순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기본구조와 함께 정리하였다.

표 1. 한국어/영어/베트남어/타갈로그어 명사구 어순

	매개변수	베	타갈로그		영	한
			기본	가변		
1	한정사	N+Det	N+Det	both	Det+N	Det+N
2	형용사	N+Adj	N+Adj	both	both	Adj+N
3	소유격	N+Gen	N+Gen	both	Gen+N	Gen+N
4	관계절	N+Rel	N+Rel	both	N+Rel	Rel+N

명사관련 어순에 이어 이제 타갈로그어 동사구의 어순과 부치사 및 종속접속사의 어순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동사 전치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동사구에서도 핵어 전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안(2022)는 중국어의 어순을 논의하면서 동사구 어순의 매개변수를 표 2와 같이 9가지로 설정한 바 있다. 타갈로그어는 동사 전치형 언어이기 때문에 이 표에서 동사의 위치와 관련이 있는 [1]-[4]항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제[2]항과 관련하여 목적어의 개념이 애매한데 본 연구는 일단 피동주를 목적으로 보고 논의를 진행하겠다.

표 2에서 [1]-[4]항의 경우 동사구의 핵어인 동사의 위치와 관련이 있으므로 핵어 전치적 어순인지 핵어 후치적 어순인지 쉽게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항목들은 핵어가 없기 때문에 이들의 순서만을 가지고 핵어 전치 구조 및 핵어 후치 구조를 판단하기는 어렵고, 이 어순의 경향성을 가지고 ‘핵어 전치적 패턴’인지 ‘핵어 후치적 패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표 2.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동사구의 어순

	매개변수	베트남어 (H-initial)	중국어	한국어 (H-final)
1	동사위치	V-initial	both	V-final
2	목적어	V + O	both	O + V
3	부사	V + Ad	Adv + V	Adv + V
4	부치사구	V + PP	PP + V	PP + V
5	목적어/부사	O + Adv	Adv + O	Adv + O
6	부사/부사	Ad1 + Ad2	Ad2 + Ad1	Ad2 + Ad1
7	간목/직목	DO + IO	IO + DO	IO + DO
8	비교구문	Adj + Stnd	Stnd + Adj	Stnd + Adj
9	조동사	Aux + Verb	Aux + Verb	Verb + Aux

이 관점에서 보면 제2장에서 논의한 바 있는 Greenberg (1966)의 보편성이나 Vennemann (1974)의 경향성이 아직 유효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표 2에서 베트남어 [5]-[9]항의 어순은

‘핵어 전치적 패턴’이고 한국어는 ‘핵어 후치적 패턴’이다. Vennemann (1974)의 운용소/피운용소(operator/operand)의 관계라고도 할 수 있다. 표 2의 [1]-[4]항에 대한 예문은 3.1.절에서 그리고 이하의 논의 과정에서 자주 나타나기는 하지만 논의의 편의상 (12)에 간단히 제시하고, 이어 표 2의 [5]-[9]항 및 부치사, 종속접속사의 위치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겠다.

## (12) a. 동사 전치 어순

Nag-ta-trabaho ang lalaki.  
AF.work.IMPF CASE\_1 man

‘The man is working.’

## b. 동사/목적어의 어순

Nag-ba-basa ng dyaryo ang guro.  
AF.read.IMPF CASE\_21 newspaper CASE\_1 teacher

‘The teacher is reading the newspaper.’

## c. 동사/부사의 어순

B=in=ili ko itong damit kahapon. (= (7a))  
PF.buy.PERF I this dress yesterday

‘I bought this dress yesterday.’

## d. 동사/부치사구의 어순

Nag-ta-trabaho ang lalaki sa silid.  
AF.work.IMPF CASE\_1 man in room

‘The man is working in the room.’

목적어와 부사: 베트남어와 같은 핵어 전치적 언어에서는 [목적어+부사]의 어순이 일반적이며 한국어와 같은 핵어 후치적 언어에서는 [부사+목적어]의 어순이 일반적이다. 동사 전치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목적어+부사]의 핵어 전치적 패턴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본 연구가 조사한 자료는 이와 일치한다. (13)의 예에서 타갈로그어는 모두 [목적어+부사]의 어순을 보인다. 본 연구자들에게 자료를 제공한 원어민에 따르면 [부사+목적어]의 어순도 가능한데 [목적어+부사]의 어순이 중립적이다.

## (13) 타갈로그어 목적어/부사의 어순

a. Naka-tagpo ni John si Mary ngayong araw.  
AF.meet.PREF CASE\_1 John CASE\_2 Mary current day

‘John met Mary today.’

- b. Naka-tagpo ni John si Mary sa paaralan.  
 AF.meet.PREF CASE\_1 John CASE-2 Mary in school  
 'John met Mary in the school.'
- c. In-alis ni John ang upuan sa silid.  
 PF.take\_off.PERF CASE\_1 John CASE-2 chair from room  
 'John took a chair out of the room.'

부사들 사이의 어순: 부사들 사이의 어순이란 다양한 부사들 사이에 나타나는 어순 패턴을 말하는데 (14)의 한국어와 영어의 동사구에서 2가지 다른 패턴이 잘 나타난다. 즉 영어와 한국어 동사구의 어순이 완전히 반대로 나타났는데 송경안(2022) 등은 이러한 어순을 '동사와의 밀착도'라는 개념으로 설명한 바 있다. 이는 일찍이 독일어권에서 논의되었던 개념으로 '의미적으로 동사에 가까운 요소일수록 동사에 가까이 위치한다.'는 원리이다(Fourquet, 1959; Admoni, 1962; Flämig, 1964; Kirkwood, 1969; 송경안, 2019, p. 324). 이는 부사들뿐만 아니라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목적어를 포함한 동사구 전체 어순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다.

(14) 부사들 어순의 2가지 패턴

- a. I go to Seoul by train today. (핵어 전치적 패턴)  
 ① ② ③ ④
- b. 나는 오늘 기차로 서울에 간다. (핵어 후치적 패턴)  
 ④ ③ ② ①

(15) 밀착도에 따른 동사구 어순의 2가지 패턴

- a. I met Mary in the school today. (핵어 전치적 패턴)  
 ① ② ③ ④
- b. 나는 오늘 학교에서 영희를 만났다. (핵어 후치적 패턴)  
 ④ ③ ② ①

**직접목적어(DO)와 간접목적어(IO):** 2가지 목적어의 어순도 베트남어와 한국어가 반대로 나타났는데 동사 전치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베트남어의 패턴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몇 가지 예를 보면 (16)과 같다. (16a-c)의 행위자 초점 구조이다. 이 구조가 피동주나 수령자(recipient) 초점 구조보다 DO/IO 어순에 더 중립적일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예들을 선택한 것이다. (16d)는 도구 초점(instrumental focus) 구문으로 이 역시 DO/IO의 중립적 어순을 잘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16) 타갈로그어 직접목적어와 간접목적어의 어순

- a. Kailan ka nag-bigay ng pera kay Tom?<sup>20)</sup>  
 when you AF.give.PERF CASE\_2 money to Tom  
 'When did you give money to Tom?'
- b. Nag-bigay ang tatay ng pera sa amin.  
 AF.give.PERF CASE\_1 father CASE\_2 money to us  
 'Father gave us some money.'
- c. Nag-bigay sila ng mga bulaklak sa kanilang titser.  
 gave they CASE\_2 PL flowers to their teacher  
 'They gave their teacher flowers.'
- d. Ipinan-sulat ni John ng liham kay Mary ang makinilya.  
 IF-write-PERF CASE\_3 John CASE\_2 letter to Mary CASE\_1 typewriter  
 'John wrote Mary a letter on the typewriter.' (Schachter & Shopen, 2007, p. 35)

**비교구문과 조동사 구문:** 이 2가지 어순에서도 타갈로그어는 베트남어와 같은 핵어 전치형 패턴을 보일 것으로 짐작된다. Greenberg (1963)의 [보편성 16]이나 Vennemann (1974, p. 9)의 경향성에 따르면 VO 언어에서는 [조동사+본동사]의 어순이 일반적이며 동사 전치형 언어인 타갈로그어도 이 어순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타갈로그어의 예를 보면 (17)과 같다.

- (17) a. Kaya niyang gawin ito.  
 can he do.INF it  
 'He can do it.'
- b. Kailangan mong pumunta sa paaralan.  
 must you go.INF to school  
 'You must go to school.'

역시 Greenberg (1963)의 [보편성 22] 및 Vennemann (1974, p. 9)의 경향성에 따르면 핵어 전치형 언어에서는 비교구문에서 '형용사+비교표지+기준'의 어순이 일반적이며 타갈로그어도 이 어순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한 타갈로그어의 예를 보면 (18)과 같다.<sup>21)</sup>

20) (16a-c)의 예문 출처: <https://www.tagalog.com>

21) 예문 출처: <https://www.tagalog.com>.

- (18) a. Mas matanda si nanay kaysa kay tatay.<sup>22)</sup>  
 more aged CASE mother than to father  
 ‘Mom is older than Dad.’
- b. Mas mahirap ba ang Ingles kaysa sa Hapon?  
 more hard Q CASE English than to Japanese  
 ‘Is English harder than Japanese?’
- c. Mas hilig ni Beatrice ang pag-arte kaysa pag-awit.  
 more inclined CASE\_2 Beatrice CASE\_1 acting than singing  
 ‘Beatrice is more interested in acting than singing.’

**부치사와 종속접속사.** 부치사(adposition)의 위치는 VO/OV 어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즉 VO 언어에는 전치사가 발달해 있고 OV 언어에서는 후치사가 지배적이다 (Greenberg, 1963; Dryer, 2013a). Greenberg (1963), Hawkins (1983)에서 종속접속사와 VO/OV 패턴과의 관계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 Dryer (2013d)에 따르면 전체적으로 종속접속사 전치 패턴이 우세하고 접속어가 술어의 접미사로 나타나는 패턴은 동사 후치 언어에서 우세하다. Vennemann (1974, p. 9)의 논의에서도 종속접속사와 종속절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러나 본 연구가 보기에 이 2가지 범주를 운용소/피운용소 관계로 보아도 무리가 없을 것 같다.<sup>23)</sup> 이에 따르면 종속접속사가 문두에 오는 베트남어는 핵어 전치적 패턴이고 접속표현이 문미에 오는 한국어는 핵어 후치적 패턴이다.

핵어 전치형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전치사형 언어이리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고 종속접속사는 문장 앞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타갈로그어 전치사 구문의 예를 보면 (19)와 같다. 여기서 *sa*는 사격(oblique) 표지인데 (19c)에서는 전치사 *galing*(‘from’) 다음에 사격표지가 붙어 있다. 본 연구의 예문에서 자주 나타나는 격표지 *ang/ng*도 일종의 전치사라고 할 수 있다. (20)은 종속접속사 구문의 예인데 종속절에서도 동사 전치 어순이 쓰이고 있는 것은 볼 수 있다. (20a)에서 *kita*는 “I-you”를 동시에 표현하는 독특한 형식의 대명사이다.

(19) 타갈로그어 전치사 구문의 예

- a. Ini-lagay niya ang aklat sa mesa.  
 PF.put.PERF he CASE book on table  
 ‘He put the book on the table.’

22) *Nanay/tatay*는 보통명사이기 때문에 *ang/kay*를 격표지로 사용해야 하는데 자기 ‘엄마/아빠’일 경우 고유명사에 쓰는 격표지 *si/kay*를 사용하기도 한다(Joanna Visaya p.c.).

23) 종속접속사는 전치사와 마찬가지로 문장 안에서 관련 표현의 기능을 표시해 주기 때문에 [접속사/종속문]의 관계는 [전치사/명사]의 관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일종의 핵어라고 할 수 있다.

- b. Nasa Maynila ang gusali.  
 in Manila CASE building  
 ‘The building is in Manila.’
- c. T=in=anggal ko ito galing sa mata ko.  
 PF.remove.PERF I it from eye my  
 ‘I removed it from my eye.’

(20) 타갈로그어 종속접속사 구문의 예<sup>24)</sup>

- a. Masaya ako kapag na-ki-kita kita.  
 happy I when PF.see.IMPF I-you  
 ‘I am happy whenever I see you.’
- b. Mag-ka-ka-trabaho na tayo bago matapos ang taon.  
 AF.work.CTPL already we before end CASE year  
 ‘We will have a job before the year ends.’

표 3. 한/영/독/프/중/베/타 어순의 핵어 전치/후치적 경향성

	매개변수	베	타	프	영	독	중	한
1	한정사	-1	-I[0]	+1	+1	+1	+1	+1
2	형용사	-1	-I[0]	-1	0	+1	+1	+1
3	소유격	-1	-I[0]	-1	+1	0	+1	+1
4	관계절	-1	-I[0]	-1	-1	0	+1	+1
5	동사위치	-1	-1	-1	-1	0	0	+1
6	목적어	-1	-1	-1	-1	0	0	+1
7	부사	-1	-1	-1	-1	0	+1	+1
8	부치사구	-1	-1	-1	-1	0	+1	+1
9	목적어/부사	-1	-1	-1	-1	+1	+1	+1
10	부사/부사	-1	-1	-1	-1	+1	+1	+1
11	간목/직목	-1	-1	-1	0	+1	+1	+1
12	비교구문	-1	-1	-1	-1	-1	+1	+1
13	조동사	-1	-1	-1	-1	-1	-1	+1
14	부치사	-1	-1	-1	-1	-1	-1	+1
15	종접사	-1	-1	-1	-1	-1	-1	+1
	계	-15	-15[-11]	-13	-9	+1	+7	+15

24) 예문 출처: <https://www.tagalog.com>. (20b)는 미도래상(contemplated aspect) 문장이다.

이상에서 우리는 9가지의 동사구 어순 관련 매개변수와 부치사, 종속접속사의 위치를 중심으로 타갈로그어 어순의 핵어 관련 경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동사 전치 구조를 갖는 타갈로그어의 경우 핵어 전치적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데 분석 결과는 우리의 예상과 일치하였다. 즉 위 11가지 매개변수에서 타갈로그어는 모두 핵어 전치적 패턴을 보이고 있다. 위에서 본 명사구 어순 관련 매개변수 4개를 합하면 매개변수는 모두 15가지가 되는데 송경안(2022)은 이 15가지의 매개변수를 가지고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베트남어의 핵어 관련 경향성을 계량화한 바 있다.

송경안(2022)의 통계에 타갈로그어를 추가해서 어순의 경향성을 비교해 보면 표 3과 같다. 이 표에서 [-1]은 핵어 전치적 패턴, [+1]은 핵어 후치적 패턴을 나타내고, [0]은 2가지 패턴을 모두 갖는 경우를 말한다. 타갈로그어는 [1]-[4]항에서 2가지 숫자로 표시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논의한 타갈로그어 명사구의 가변적 어순을 반영한 것이다. 즉 타갈로그어는 전체적으로 베트남어와 비슷하게 핵어 후치적 경향을 강하게 보이는데 명사구에서는 가변적 어순이라는 중요한 특징을 갖는다고 하겠다.

#### 4. 마무리

Greenberg (1966) 이후 유형론은 VO/OV 어순을 중심으로 어순의 보편적 경향성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Dreyer (2013a,b,c) 등에 이르러서는 이러한 보편적 경향성이 거의 부정되고 있다. 우리 주변의 언어들 살펴보면 이러한 보편성을 완전히 포기하기에는 아쉬운 면이 없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경안(2022)은 어순 유형론에 대한 계량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어순의 보편성이 정도의 문제라고 보고 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우리는 어순과 관련한 15가지의 매개변수를 선정하였다. 이들의 핵어 전치적 및 후치적 패턴을 조사하여 전자에는 [-1]점, 후자에는 [+1점], 2가지 패턴을 모두 허용하는 경우에는 [0]점을 부여하고 이 점수들을 합해서 개별언어의 핵어 전치적 및 후치적 경향의 정도를 측정해 보려는 것이다. 이 방식에 따르면 한국어는 [+15]점, 베트남어는 [-15점], 영어는 [-9]점이 된다. 동사 전치 언어인 타갈로그어는 기본적으로 15가지의 매개변수에서 모두 핵어 전치적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베트남어와 비슷한 상황이다. 그러나 타갈로그어에서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명사구에서 가변적 어순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가변적 어순에 [0]점을 부여한다면 타갈로그어는 [-11]점을 얻게 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유의할 점은 이 가변적 어순에서 항상 핵어 전치적 어순이 기본구조라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송경안. (2019). *언어의 유형과 한국어 그리고 영어*. 서울: 역락.
- 송경안. (2020). 타갈로그어의 가변적 어순: 어순 유형론의 제3시대. *언어와 언어학*, 89, 61-88.
- 송경안, 이은하. (2018). 타갈로그어의 유형론적 논점들에 대하여. *언어학*, 26(4), 177-201.
- 윤경원. (2012). 한국어 타갈로그어 대조 연구: 형태론적 특징과 어순을 중심으로. *겨레어문학*, 48, 301-326.
- 이기갑. (2008). 어순의 유형론. 송경안·이기갑 외, *언어유형론 I* (pp. 299-335). 서울: 월인.
- 이은하. (2019). 한국어·타갈로그어 기본구조 및 어순에 대한 유형론적 대조연구 -영어의 현상과 관련하여-.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남택, 손재현 역. (2013). *언어학*. 서울: 제이앤씨.
- Admoni, W. (1962). Über die Wortstellung im Deutschen. In H. Moser (Ed.), *Ringgen um eine neue deutsche Grammatik* (pp. 376-380). Darmstadt: Wissenschaftliche Buchgesellschaft.
- Aldridge, E. (2008). Minimalist analysis of ergativity. *Sophia Linguistica*, 55, 123-142.
- Andrew, A. (2007). The major functions of the noun phrase.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pp. 132-223).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pillera, P. S., & Hernandez, Y. C. (2014). *Basic tagalog for foreigners and non-Tagalogs*. North Clarendon: Tuttle Publishing Co.
- Blake, B. (1994). *Cas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loomfield, L. (1917). *Tagalog texts with grammatical analysis*. University of Illinois Studies in Language and Literature III. Urbana: University of Illinois.
- Castle, C. S., & McGonnell, L. (2003). *Teach yourself Tagalog*. London: Hodder Education.
- Comrie, B. (1981). *Language universals and linguistic typology*. Oxford: Basil Blackwell.
- Danes, F. (Ed.) (1974/2015). *Papers on functional sentence perspective*. *Janua linguarum* 147. Berlin: Walter de Gruyter
- Dryer, M. S. (1992). The Greenbergian word order correlations. *Language*, 68, 81-138.
- Dryer, M. S. (1995). Word order typology. In J. Jacobs, A. von Stechow, W. Sternefeld, & Th. Vennemann (Eds.), *Syntax: An international handbook of contemporary research*. vol. 2 (pp. 1050-1065). Berlin: Walter de Gruyter.
- Dryer, M. S. (2005). Order of relative clause and noun. In M. Haspelmath, M. S. Dryer,

- D. Gil, & B. Comrie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pp. 366-369).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Dryer, M. S. (2007). Word order.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I* (pp. 61-131).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yer, M. S. (2013a). Relationship between the order of object and verb and the order of adposition and noun phrase. In M. Dryer & M. Haspelmath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Leipzig: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Available online at <http://wals.info/chapter/95>, Accessed on 2022-10-18.)
- Dryer, M. S. (2013b). Relationship between the order of object and verb and the order of relative clause and noun. In M. Dryer & M. Haspelmath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Leipzig: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Available online at <http://wals.info/chapter/96>, Accessed on 2022-10-18.)
- Dryer, M. S. (2013c). Relationship between the Order of object and verb and the order of adjective and noun. In M. Dryer & M. Haspelmath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Leipzig: Max Planck Institute for Evolutionary Anthropology. (Available online at <http://wals.info/chapter/97>, Accessed on 2022-10-18.)
- Dryer, M. S. (2013d). Order of adverbial subordinator and clause. In M. Dryer & M. Haspelmath (Eds.),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nline*. <https://doi.org/10.5281/zenodo.7385533>. (Available online at <http://wals.info/chapter/94>, Accessed on 2023-02-13).
- Flämig, W. (1964). Grundformen der Gliedfolge im deutschen Satz und ihre sprachlichen Funktionen. *Beiträge zur Geschichte der deutschen Sprache*, 86, 309-349.
- Fourquet, J. (1959). Strukturelle Syntax und inhaltbezogene Grammatik. In H. Gipper (Ed.), *Sprache - Schlüssel zur Welt* (pp. 360-375). Düsseldorf: Schwann.
- Fox, B. (1985). Word order inversion and discourse continuity in Tagalog. *Quantified studies in discourse*, 5(1/2), 39-54.
- Gerds, D. (1988). Antipassives and causatives in Ilokano: Evidence for an ergative analysis. In R. McGinn (Ed.), *Studies in Austronesian linguistics* (pp. 295-321). Athens: Ohio University Press.
- Greenberg, J. (1966).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J. 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pp. 3-113). Cambridge, MA: MIT Press.

- Greenberg, J. (1978). *Universals of human language*.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Haspelmath, M., König, E., Oesterreicher, W., & Raible, W. (Eds.). (2001).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Handbücher zur Sprach- und Kommunikationswissenschaft 20.1. Berlin: Walter de Gruyter.
- Haspelmath, M., Dryer, M. S., Gil, D., & Comrie, B. (Eds.). (2005). *The world atlas of language structure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awkins, J. (1983). *Word order universals*. New York: Academic Press.
- Kazenin, K. (2001). The passive voice. In M. Haspelmath, E. König, W. Oesterreicher, & W. Raible (Eds.), *Language typology and language universals*. vol. 2 (pp. 899-915). Berlin: Walter de Gruyter.
- Kibrik, A. E. (1997). Beyond subject and object: Toward a comprehensive clause relational typology. *Linguistic typology* 1(3), 279-346.
- Kirkwood, H. (1969). Aspects of word order and its communicative function in English and German. *Journal of linguistics* 5, 85-107.
- Kroeger, P. (1993). *Phrase structure and grammatical relations in Tagalog*. Stanford: CSLI Press.
- Lehmann, W. P. (1973). A structural principle of language and its implications. *Language*, 49(1), 47-66.
- Lehmann, W. P. (1978a). The great underlying ground-plans. In W. P. Lehmann (Ed.), *Syntactic typology* (pp. 3-55). Austin: Texas University Press.
- Lehmann, W. P. (1978b). Conclusion: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profound unity underlying languages. In W. P. Lehmann (Ed.), *Syntactic typology* (pp. 395-432). Austin: University of Texas Press.
- Lehmann, W. P. (Ed.). (1978). *Syntactic typology*. Austin: Texas University Press.
- Li, C., & Thompson, S. (1976). Subject and topic: A new typology of language. In C. Li (Ed.), *Subject and topic* (pp. 457-490). New York: Academic Press.
- Payne, T. (1982). Role and reference related subject properties and ergativity in Yup'ik Eskimo and Tagalog. *Studies in language*, 6(1), 75-106.
- Ramos, T. (1971). *Tagalog structures*.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Richards, N. (2000). Another look at Tagalog subjects. In I. Paul, V. Phillips, & L. Travis (Eds.), *Formal issues in Austronesian linguistics* (pp. 105-116). Dordrecht: Springer.
- Richards, N., & Klamer, M. (1996). Subjects in Tagalog and Icelandic. *Voice in Austronesian*, 39, 31-49.

- Sabbagh, J. (2016). Specificity and objecthood in Tagalog. *Journal of Linguistics*, 52(3), 639-688.
- Schachter, P. (1976). The subject in Philippine languages. In C. Li (Ed.), *Subject and topic* (pp. 491-518). New York: Academic Press.
- Schachter, P. (1977). Reference-related and role-related properties of subjects. In P. Cole & J. Sadock (Eds.), *Syntax and semantics*. vol. 8 (pp. 279-306). New York: Academic Press.
- Schachter, P. (1996). The subject in Tagalog: Still none of the above. *UCLA Occasional Papers in Linguistics* 15.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achter, P., & Otones, T. (1972). *Tagalog reference grammar*.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Schachter, P., & Shopen, T. (2007). Parts-of-speech systems. In T. Shopen (Ed.), *Language typology and syntactic description*. vol. 1 (1-6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contras, G., & Nicolae, A. (2014). Saturating syntax: Linkers and modification in Tagalog. *Lingua* 149, 17-33.
- Shibatani, M. (2004). Voice. In G. Booij, Ch. Lehmann, J. Mugdan, & S. Skopeteas (Eds.), *Morphologie: Ein internationales Handbuch zur Flexion und Wortbildung*. vol. 2 (pp. 1145-1164). Berlin: Walter de Gruyter.
- Song, J. J. (2001). *Linguistic typology: Morphology and syntax*. London: Longman.
- Song, J. J. (Ed.) (2011). *The Oxford handbook of linguistic typolog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Song, J. J. (2012). *Word order*.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ennemann, T. (1973). Explanation in syntax. In J. P. Kimball (Ed.), *Syntax and semantics* 2 (pp. 1-50). New York: Seminar Press.
- Vennemann, T. (1974). Theoretical word order studies: Results and problems. *Papiere zur Linguistik*, 7, 5-25.
- De Vos, F. (2011). *Essential Tagalog grammar: A reference for learners of Tagalog*. Laguna/Berlin: Learning Tagalog.

**송경안**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독일언어문학과 명예교수  
전화: 062-530-3170  
이메일: kasong@chonnam.ac.kr

**이은하**

61452 광주시 동구 필문대로 309  
조선대학교 대학원 강사  
이메일: joshua@chosun.ac.kr

Received on February 17, 2023  
Revised version received on March 20, 2023  
Accepted on March 31, 2023